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11. 27.(월) 11:00,  
(지면) 2023. 11. 28.(화) 조간

배포 2023. 11. 27.(월) 06:00

# 우리나라 대표단, 대서양 고래자원 보호 논의 주도

- 선망어업 시 고래잉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최초 결의안 발의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지난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이집트 뉴카이로에서 개최된 ‘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(이하 ICCAT)\* 제28차 총회’에 참석하여 대서양 다랑어 자원 보존 및 조업 관리를 위한 논의를 적극 주도하였다고 밝혔다.

\*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: 우리나라, 미국, EU, 영국, 일본, 중국 등 5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로, 대서양 다랑어 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1966년 설립(우리나라는 1970년 가입)

우리나라는 그간 ICCAT 내에 고래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이번 총회에서 선망어업\* 시 고래잉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고래보호조치 최초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, 이 결의안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.

\* 기다란 사각형의 그물로 어군을 둘러싸고, 그물의 아래쪽을 조여서 대상물을 잡는 어업

이 외에도, 이번 총회에서는 대서양 청새리상어 자원상태의 악화에 따라 총허용어획량(TAC)을 조정하는 등 부수어획 중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채택되었다. 또한, 국제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었다. ICCAT 회원국은 기후변화가 대서양 다랑어 자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,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우리나라는 대서양 고래자원 보호를 위한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서양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대서양 다랑어 자원의 보호는 물론, 지속적인 조업과도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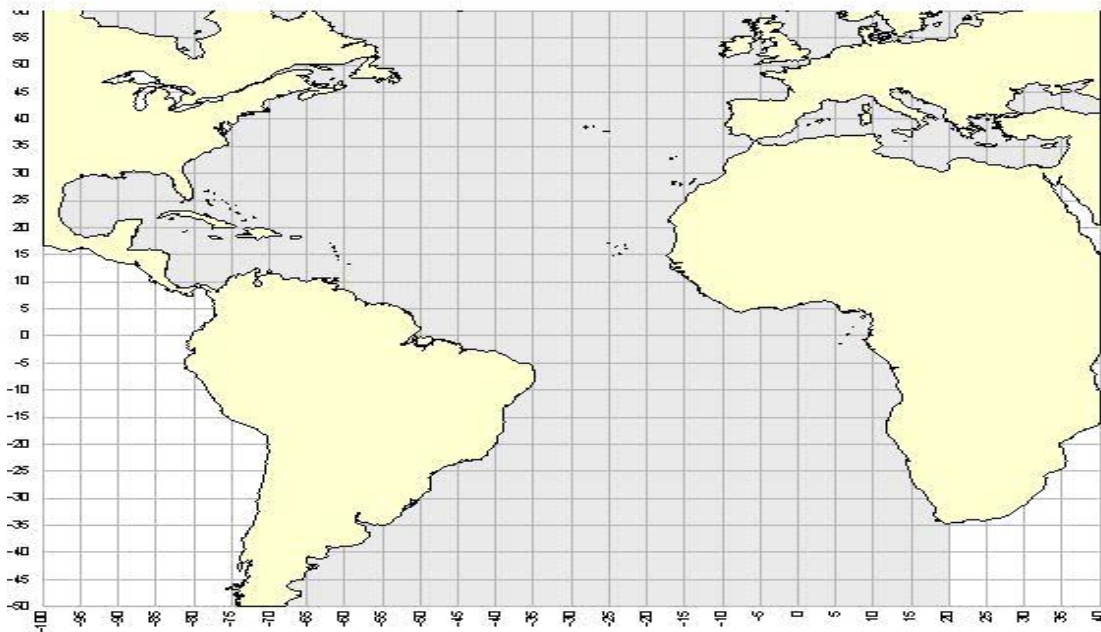
담당 부서	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임지현 (044-200-5330)
		담당자	사무관	심수빈 (044-200-5333)

\*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

□ **설립목적** : 대서양 참치 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 이용

□ **현황**

- 협약 채택일/발효일 : '66.5.14/'70.8.28(가입일 '70.8.28)
- 사무국장 : Mr. Camille Jean Pierre Manel(세네갈)
- 사무국 소재지 : 스페인(마드리드)
- 회원국 : 52개국(한, 미, EU, 영, 일, 중, 등)
- 관리어종 : 눈다랑어, 참다랑어 등 고도회유성 다랑어류
- 협약수역 : 대서양 전체 수역(연안국 EEZ 포함)



□ **우리나라 조업 현황**

조업선박	참치연승선 6척 (사조산업 4척, 동원산업 2척)
조업시기	연중 (참다랑어는 9~10월)
조업실적 (톤)	('19) 2,857 → ('20) 2,284 → ('21) 1,566 → ('22) 1,808